

# 2017년 제4회 시각장애인가족 한마음축제 보도자료

시사 > 경제기사

## 시각장애인가족 한 자리에...제 4회 한마음축제 성황

입력 : 2017-06-06 22:55 / 수정 : 2017-06-06 09:10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관장 김미경)은 지난 3일 서울 관악구 제1구민운동장에서 2017년 시각장애인가족 한마음축제를 개최했다.

공식 야외활동이 어려운 시각장애인들이 마음껏 체육 경기에 참가해 신체활동을 할 수 있어 의미 있는 축제였다.



행사에는 최동익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사무총장, 유종필 서울 관악구청장, 김성식 오신환 국회의원, 이인제 한국유엔봉사단 총재, 김용파 대한안마사협회 중앙회 회장, 남산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시 협회장, 강은택 우리동작자립생활센터 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직원 및 자원봉사자 200여명이 축제를 도왔다.



KT&G 상상유니브 대학생 봉사단은 오감으로 할 수 있는 제립부스를 운영했다.

고드림병원에선 건강부스를 운영하고 시각장애인에게 건강검진을 진행했다.

KT&G 상상유니브 봉사단원 박지현(22여)씨는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은 처음이었다. 조금이나마 시각장애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개인적으로 잘 부딪혔다"고 소감을 남겼다.

체육경기로는 플라보르, 팔넛기, 팔씨름, 훑놀이, 이어달리기 등이 있었다.



장애제립, 보조공학기기 시연회 등 제립부스가 함께 진행됐고, 아동을 위한 에어바운스, 아동 제립 활동, 가족 체육경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행사에 참여한 시각장애인 가족 송미현(37여)씨는 "한마음축제를 처음 참여했는데 굉장히 만족하고 있다. 규모가 큰 행사일수록 가족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은 적어 아쉬움이 있었는데, 여기는 아이들도 함께 즐길 수 있어 좋다"고 했다.



또 "무엇보다 먹거리가 풍성하고 간식도 많이 잔치의 풍성함을 느낄 수 있었다. 내년에도 꼭 참석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한국유엔봉사단, 한국국제연합봉사단, SPC, 60계치킨, 우리은행, 하나은행, 워더스해운항공, 서울F&B, 모리사와, 두끼떡볶이, 뽕드드, 디핀다트 코리아 등이 후원기업으로 동참했다.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김미경 관장은 "시각장애인 가족이 서로 만나고, 직원과 이용자가 만나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며 "무엇보다 직원부터 자원봉사자, 시각장애인 가족들이 함께 했기에 가능한 축제였다. 앞으로도 더 많은 시각장애인 가족들이 함께 즐기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문은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지역사회지원센터(02-880-0890~4)로 하면 된다.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



## 60계치킨, '2017 시각장애인가족 한마음축제' 치킨 나눔 봉사활동

머니투데이 증기&정업팀 정유진 | 입력: 2017.06.09 17:14

기사

소셜댓글(0)

기사공유

60계치킨은 지난 3일 관악구 제1구민운동장에서 시각장애인 가족과 함께 '2017 시각장애인가족 한마음축제(이하 축제)'에 함께했다고 9일 밝혔다.



2017 시각장애인가족 한마음축제에 참여한 60계치킨/사진제공=60계치킨

이번 축제는 평소 야외 활동이 어려운 시각장애인들이 체육 경기에 참가해 자유로운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며 다양한 기업의 후원과 200명의 자원봉사자의 참여로 행사의 풍성함을 더했다.

60계치킨은 깨끗하고 바삭한 치킨을 시각장애인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푸드 트럭을 준비해 100명분의 치킨을 지원

했다.

축제 참가자는 "가족과 함께 마음껏 뒹수 있어서 좋았고 먹거리도 풍성해서 내년에도 꼭 참석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스푸드(60계치킨) 장조웅 대표는 "참가자들에게 60계치킨을 맛보여 드릴 수 있어 뜻 깊었으며 맛있게 드시는 모습에 감사했다"며 "향후에도 봉사활동을 통해 시각장애인 분들과 인연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란

## 실로암시각장복, '2017 시각장애인가족 한마음축제' 개최

메이크업인 2017.06.08 18:04:16

자동생 기자 | ablenews@naver.com



▲ 실로암시각장애인가족

실로암시각장애인가족복지관(이하 복지관)은 지난 3일 관악구 제1구민운동장에서 시각장애인 가족 1,200여 명과 함께 '2017 시각장애인가족 한마음축제(이하 축제)'를 열었다.

이번 축제는 서울시수도권 내 거주하고 있는 시각장애인들이 모여 화합을 다지고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는 행사로 기획됐다.

또 평소 야외활동이 어려운 시각장애인들이 마음껏 체육 경기에 참가해 신체활동을 할 수 있어 더욱 의미 있는 축제였다.

200명에 가까운 직원·자원봉사자가 함께한 이번 축제는 다양한 기업의 후원과 많은 내빈의 참여로 행사의 풍성함을 더했다.

KT&G 상상유니브 대학생 봉사단은 오감으로 할 수 있는 체험부스를 운영했으며, 경기 운영과 관련한 모든 부분에서 축제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했다.

또한, 고도일병원은 건강부스를 운영해 시각장애인 참가자들에게 건강검진을 진행했다.

체육경기인 ▲골라후프 ▲줄넘기 ▲팔씨름 ▲이어달리기 등과 체험활동인 ▲장애체험 ▲보조공학기기 시연회 ▲어린이를 위한 에어바운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번 축제에 처음 참여한 시각장애인가족 이 씨와 S 씨는 "규모가 큰 행사일수록 가족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 적어 아쉬웠는데, 여기는 아이들도 함께 즐길 수 있어 좋았다"며 "먹거리도 풍성하고 간식도 많아서 굉장히 만족했다. 내년에도 꼭 참석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복지관 김미경 관장은 "이번 축제는 시각장애인가족이 서로를 만나고, 직원과 이용자가 만나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이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시각장애인가족들이 함께 즐기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머니투데이

국민복지시대리더십  
웰페어뉴스  
Welfarenews.net

## 실로암시각장복, '시각장애인가족 한마음축제' 개최



임시계정  
저장목록  
목록삭제  
도움말

메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6-29 09:39:17

실로암시각장애인가족복지관이 오는 6월 3일 관악구 제1구민운동장에서 시각장애인 가족 1000여명과 함께 '2017년 시각장애인가족 한마음축제'를 개최한다.

이날 프로그램으로는 골라후프, 줄넘기, 줄다리기, 팔씨름, 윷놀이 등 다양한 체육경기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활동이 있다. 장애체험, 보조공학기기 시연회, 촉각교재 체험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유용한 체험부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KT&G 상상유니브와 신한은행 임직원 등 자원봉사자 200명이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문의> 지역사회지원센터 02-880-0880~4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購買  
新年  
Ablenews  
에이블뉴스